

North Korea

2005 년 북한은 2006 월드컵 예선전을 준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취재를 위해 다수의 외국 언론인을 초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국가사회주의와 김정일 개인 숭배를 위한 선전선동의 멍에에 억압된 삶을 살고 있다.

김정일은 '위대한 언론학 교수'로서 언론학과 학생들의 교과서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는 항상 보도일군들의 편에 서며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자세히 가르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는 학생들에게 대중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훌륭한 기사를 쓸 것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언론은 김정일이 직접 통제하고 있다. 특히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은 더욱 그러하다. 모든 기자들은 하나의 실수없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도록 계도돼 있다. 언론은 또한 부르조아와 부패한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데 그 직무를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에서는 오타 한 자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10 여명의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철자(이름, 직책 등)를 잘 못 썼다는 이유로 '혁명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밖에 국영 TV 의 송금철 기자는 1995 년 말 비판적 기자들을 규합했다는 죄목으로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다. 그 이후 어느 누구도 그의 소식을 접할 수 없었다.

2005 년 11 월 관영통신사는 공개처형 장면과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을 방송한 CNN 에 대해 "그들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공식 보도했다. 평양정권은 CNN 방송을 금지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반면에 ABC 의 한 취재팀은 5 월 경제 개혁에 관한 방송 취재 허가를 받기도 했다.

남한에는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방송이 설립됐다. *Dailynk.com* 이라는 온라인 방송과 자유북한방송은 인터넷과 단파 방송을 통해 북녘 동포들에게 제한적이거나 최선을 다해 뉴스를 전하고 있다.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가 공식 방송에 맞추 봉인된 상태에서 경찰은 봉인상태를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인는 상황에서도 남한방송 또는

아시아자유방송(*Radio Free Asia*)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가 중국을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다.